생명 살리는 첫 걸음, 전북생명평화포럼 출범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서
생명포럼 회원 100여 명 참석해
연 2차례 정기, 순회포럼 상설화
'모악산 생명평화학교' 개설 예정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생명평화포럼은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생명평화의 시점에서 전북의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생명평화포럼(공동대표 김택천, 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은 11월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북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생명평화'를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와 비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택천 공동대표는 "전북생명평화포럼은 '문명사적 대전환기, 전북은 어디로 갈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전북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앞으로 포럼은 새로운 발걸음으로 생명평화의 전북으로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북생명평화 고문 도법 스님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 '적정성'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역사를 성찰해 모두의 염원이 활짝 피어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도 축사를 통해 "전북생명평화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계기로 생명평화의 전북으로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창립포럼이 진행됐다.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본 전북 전환 전략(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생명경제도시를 통한 전북의 특별함(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을거리를 통한 전북의 특별함(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북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탐색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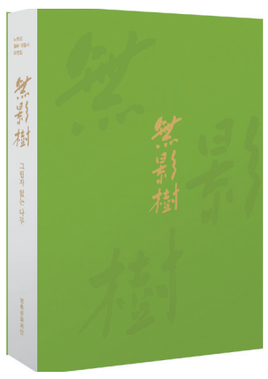
이날 출범한 전북생명평화포럼은 향후 연 2차례의 정기포럼과 순회포럼이 상설화하여 지역의 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명평화의 전북미래를 모색하는 '모악산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립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스님, 실상사 주지 승묵 스님,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이 함께했다.

또한 한광수 금산사신도회장, 유남희 송광사신도회장, 안준아 금선암신도회장, 양병용 수현사신도회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 김택천 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주요섭 사)밝은마을 대표 등 전북생명평화포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축문화재단, 월하 대종사 유영집 '無影樹' 발간

12월 3일 재단 사무실서 발표해
대종사 삶, 사상 사진으로 확인
비매품 2천부 교구본사 등 배포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1962년 1월 구성된 불교재건비상종회 의원스님들이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능가 · 숭산 · 청담 · 월하 · 추담 · 혜정 스님.

영축문화재단이 조계종 제9대 종정과 영축총림 통도사 초대 방장을 역임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유영집(사진집) '무영수(無影樹)'를 출간한다.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12월 3일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하 대종사 탄신 110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행적이 담긴 유영집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종사의 상좌 오심 스님, 미타암 동진 스님, 원효암 지범 스님을 비롯해 홍성표 영축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무영수(無影樹)'는 3년 전 기획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회의와 1년여의 편집을 거쳐 수천장의 사진 중 260장이 엄선됐다.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업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00여 점이 수록됐다. 특히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은 여석회 활동부터 조계종 제9대 종정 시절 모습까지 담겨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애쓴 대종사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다.

영축문화재단은 "수록된 사진 중 1943년 6월 월하 스님과 철원 심원사 스님들이 금강산 비로봉 정상에서 찍은 사진과 1962년 1월 조직된 불교재건비상종회의원 스님들이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에 주목할 수 있다"며 "1954년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으로 운영된 통도사의 사진 속에는 헌병과 도량을 살피는 월하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영집은 비매품으로 초판 2000부를 간행,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 등에 보시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부처님 전에 봉안된다.

간행위원장을 맡았던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유영집을 간행하고 봉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반에 든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대종사의 가르침이 후대에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聯, 제34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12월 2일 창원 정법사서 개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가 12월 2일 창원 정법사 만불전에서 '제34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제34회에는 문학부문에 서일옥 시조시인, 예술부문에 정양자 록파무용단장, 행원상에 우순기 진해문화원장이 선정됐다. 또한 황원철 창원대 명예교수가 특별상 수상의 영광을 가져갔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산해원문화상의 역사와 의미를 잘 계승하도록 정성을 다하며, 시상을 계기로 지역 예술인들의 삶이 더욱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사찰 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된다

문화사업단 · 전남관광재단 MOU
정책발굴, 협력사업 공동 추진키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12월 5일 불갑사 설선당에서 '전남 전통사찰을 활용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지역 사찰을 활용하는 체험 관광사업의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은 12월 5일 불갑사 설선당에서 '전남 전통사찰을 활용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전통사찰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전남 전통사찰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마케팅 공동 추진 △전남 전통사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타 두 기관의 상호 지속성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 김한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김영신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박근영 기업육성팀장 등이 참여했다.

만당 스님은 "전남 관광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문화사업단도 한국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이 더욱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전남을 거점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신 대표이사도 인사말에서 "전남과 저희 재단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이 필요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전남은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이 가장 많은 26곳이며, 사찰을 방문한 관광객 또한 작년 기준 748만명으로 집계될 만큼 사찰이 전남 관광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 '남도 천년고찰 세계명상관광'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사업단과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카쉐어링 플랫폼 '쏘카'와 각각 업무협약을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전라남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확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에 성관 스님

12월 4일 충북 옥천명가서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으로 현 회장인 성관 스님〈사진〉이 재임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회장 성관 스님, 와룡사 주지)는 12월 4일 충북 옥천 명가에서 2024년 총회 및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현 회장 성관 스님 태고종 중앙승가총동문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성관 스님은 "갑진년을 잘 회향하고 동문회 발전에 더욱 힘쓰자"고 인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중앙승가강원은 종단 인재 산실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축하하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승가대학 '임상수행' 입재

12월 3일 정토마을서



(재)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원장 능행 스님)이 12월 3일 원내 대강당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보디샤트바 임상수행 입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임상수행'은 승가대 졸업을 앞둔 대교반 학인스님 12명이 참여하는 과정이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7일간 호스피스전문병원 (재)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 환자 돌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창노인복지관 김장김치 나눔행사

11월 28일 100세대에 전달



선운사 복지재단(이사장 경우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이 11월 28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담근 2300포기의 김장김치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과 지역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관장 해봉 스님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향일암·보문복지회 자비 김장나눔

불우이웃 · 사회복지시설 전달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축제가 열렸다.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 스님)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는 12월 4일 '2024 자비나눔 김장대축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임직원과 금호피앤비화학, 자원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해 3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궜다. 김장김치는 여수 관내 사회복지시설 9곳, 읍면동 경로당 530곳에 전달됐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청주 용화사, 자비의 김장나눔

11월 30일~12월 1일 경내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11월 30일~12월 1일 경내에서 '2024 용화사 자비의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새터민 20명, 다문화가정 10명 등 60명의 대중이 함께 담근 1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새터민과 함께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용화사 신도회는 연탄 1000장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불우이웃에 나누기도 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덕원사, 지역 이웃 김장김치 나눔

12월 1일 경내서 김장 행사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12월 1일 경내에서 이삼성 울산외국인센터 이사장과 강한설 덕원사 신도회장 등 불자 100여 명과 함께 김장김치 1300포기를 담갔다.〈사진〉

이날 만든 김장김치 중 150박스는 울산 외국인센터를 통해 지역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덕원 스님은 "올해로 16번째인 김장김치 행사를 매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